

##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간다”

주안예교회 10주년

박기호 교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자”

주안예교회(최혁 목사)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30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최혁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환란이 많았고 오해도 있었지만,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온 역사가 주안예교회 10주년 역사였다”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주안예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앞으로도 쫓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하실수 있도록 순종하며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앞으로 더욱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다시 목표를 잡았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으니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다 내놓아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라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와 나라를 섬길 것이다. 지난 두 주동안 선교대회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최혁 목사 ©기독일보

‘소명, 약속, 순종’(창세기 12:1-5절)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박기호 교수는 “교회의 사명을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자는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명으로, 그들은 온통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 교회에 끌어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등한시한다”라면서 “저는 풀러신학교에 신교학 교수가 되기 전에는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정성을 바쳤다. 매일 새벽기도에 나갔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다. 대학에 다닐 때 버스, 기차 안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식구들 결혼식이나 부모님의 생신에 기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는 말씀에 부모에게 할 헌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부모에게 할 책임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야고보 2:8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 또 마태복음 25:31-46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의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갔고, 롯도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갔다.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과 순종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는 핑계 하지 않고 떠났다”라면서 “언제 어디서 부르시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떠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곳에서 부르셨다. 사명을 주셔서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했다.

감사예배는 박기호 교수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 “인도 힌두 지하조직들, 공권력 등에 업고 기독교인 학살”

주 당국, 기독교인들 내쫓으려 압박하고 범죄 방지

인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사역하다 최근 발생한 공격으로 탈출한 현지 사역자 A씨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그 참상을 전했다.

지난 5월 3일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 내에 속한 메이테이(Meitei)족 힌두교 폭도들이 총과 칼로 무장한 채 추라찬드푸르를 급습하고 쿠키(Kuki)족 기독교인들을 공격해, 4일 동안 추라찬드푸르에 있는 교회 121개와 교인들의 집 2,800채가 불에 탔고 사망자 130명과 난민 4만 명 가량이 발생했다.

이어 5월 27일과 성령강림절인 28일에 2

차 공격을 가해, 교회 101개와 성도들의 집 1,200개가 불에 탔고, 사망자 70명과 난민 2만 명 가량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교회 221개가 전소됐고, 기독교인 200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 최근에는 2명의 쿠키족 여성이 알몸으로 메이테이족 폭도에게 끌려다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A씨는 “마니푸르주 안에는 20만 명의 쿠키족이 살고 있는 추라찬드푸르라는 지역이 있다. 이곳은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의 도시로, 한국의 예루살렘은 평양, 중국의 예루살렘은 윈저우, 인도의 예루살렘은 이곳이라고 할 수 있다”며 “원래 외부인들은 추라찬드푸르의 땅을 살 수 없었고, 기독교인들은 이곳에서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 법원이 외부인도 추라찬드푸르의 땅을 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니푸르주 비렌싱 주지사는 지난 4월 쿠키족들이 사는 이곳을 찾아 주민들에게 집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갑작스러운 요구에 일부 주민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자 곧이어 불도저를 동원해 교회와 집들을 밀어 버렸다. 추라찬드푸르의 땅을 욕심낸 주지사의 이러한 행동은 ‘쿠키족은 추라찬드푸르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사실상 ‘경고’였으나, 쿠키족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비폭력 평화 시위’로 맞섰다”고 했다. A씨는 “비렌싱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쿠키족들의 반정부 시위라고 주장한다. 주지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쿠키족들을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령해 놓고, 오히려 그들이 정부



힌두교 메이테이족이 기독교 쿠키족들을 공격하는 것을 다룬 풍자 만화. 쿠키족을 향해 마니푸르 특공대, 아람발 탕골 지하조직, 메이테이 무장세력 등 4개 조직이 총을 겨누고 있다. ©A씨 제공

에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해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리스**  
 뱅크리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연)국제이비사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임의외교 변호사  
 (전)제미발행가협외교 변호사  
 (전)중부상경외무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시니어 찬양축제, “웰다잉,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에”

## 크렌셔장로교회 “어부들과 함께하는 시니어 찬양축제”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가 29일(토) 오후 4시에 ‘어부들과 함께하는 시니어 찬양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LA 송실 OB 남성합창단 출신인 방관수 선교사, 이현준 목사, 박병권 목사는 이날 진솔한 간증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뜨거운 찬송을 부르며 집회를 이끌었다.

집회를 이끈 남성 트리오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사명), 순례자의 노래(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운성),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주만이 내 반석), 살아계신 주(주하나님 독생자 예수) 등 10여곡 이상의 찬양을 선사했다.

이현준 목사는 “저희 구성원이 만난지 33



크렌셔장로교회가 29일 오후 4시에 ‘어부들과 함께하는 시니어 찬양축제’를 개최했다.

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같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아버지가 같아서다. 지난해에 천국에 가신 김광신 목사님은 남김없이 선교적 삶을 사셨다”라며 “선교는 순교적 삶

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감을 고백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람은 모두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라며 “세상은 ‘웰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것인지 걱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믿음과 은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천국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다.

찬양축제를 개최한 크렌셔장로교회 한현종 목사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젊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뜨겁게 신앙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분들인데 노년에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노년의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우미셀 목사 워십투어가 8월 18일(금) 감사한인교회에서, 19일(토)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다.

## 찬양인도자 우미셀 목사와 원하트가 함께하는 워십투어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오는 8월 18일과 19일에 나비워십의 우미셀 목사를 초청하여 워십투어를 개최한다.

원하트는 마커스워십, 전은주, 김윤진 등 영향력 있는 찬양사역자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미주 예배자들을 섬겨왔다. 우미셀 목사는 근래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찬양사역자로, 캘리포니아 출신 재미 2 세로 알려져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원하트 피터 박 목사는 우미셀 목사 초청이 유 중 하나로, 찬양을 사모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2세 사역자의 롤모델을 직접 보여주고, 함께 예배하는 공감의 예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K-Pop의 열풍으로 우리 2세대가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에 우미셀 목사의 사역은 다음세대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올 수 있는 이번 워십투어는 OC와 LA에서 한 차례씩 열린다. OC 지역은 8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에나파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LA 지역은 8월 19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주님의영광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티켓은 15불이며 티켓 구매는 온라인(one-heart-usa.com)과 감사한인교회 사무실, 주님의 영광교회 사무실, 그리고 원하트미니스트리 사무실(1391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할 수 있다. 수익금은 미주 지역

의 문화 사역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다. 원하트는 라이브 투어집회 외에 지역교회에서의 간증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213-347-5080 김민선 기자

##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 죽은 나무

죽은 나무야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니  
네  
저는 이처럼 죽어서도  
오늘도 관상용으로 쓰인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나요  
음  
나는 주님앞에 갈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글사진: 최순길-

## 더섬기는교회, 10년째 이뤄진 단기선교 큰 결실

플러턴 소재 더섬기는교회(담임 김영일 목사)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칼리에서 단기 선교로 섬겼다. 단기선교는 프론테라 선교회(Frontera Mission) 김용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서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27년째 멕시코칼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인 선교사는 멕시코 선교사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프론테라 선교회를 통해 8개 현지인 교회가 개척되었고, 공동체 마을과 마약재활원, 장애인 학교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더섬기는교회 김영일 목사는 이곳 현지 프론테라 신학교 학장으로 8년째 섬기고 있다.

이번 선교는 북가주의 더나누는교회와 새빛교회, 실로암 라스모교회 등 작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총 17명이 다녀왔다. 저녁 집회

강사로는 도미니카 선교사였던 한승근 목사가 나서 말씀과 기도회로 은혜를 선사했다.

교회 측은 “도착하자마자 119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다. 이튿날에는 무려 123도까지 올라 갔지만 팀원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선교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다. 특히 7살부터 초,중,고 청년, 장년까지 83세의 어르신까지 참석해 더욱 은혜스러운 선교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기선교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



플러턴의 더섬기는교회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칼리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참석한 단원들의 열정 뿐만 아니라, 몇몇 작은 교회들의 후원으로 이뤄졌고, 호주와 한국에서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함께 이루어졌다. 김민선 기자

# 교회여, 일어나라!

## 충현선교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부흥 집회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3년 8월 10일(목) - 13일(주일)
- 장소**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집회일정**
  - 8월 10일(목) 7:30PM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 (행 2:42-47)
  - 8월 11일(금) 5:20AM 교회, 복음으로 충만하자! (엡 2:1-10)  
7:30PM 교회, 사명으로 나아가자! (계 21:1-8)
  - 8월 12일(토) 5:20AM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자! (시 127:1)  
7:00PM 교회,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 (룻기 1:1-8, 16-17)
  - 8월 13일(주일) 8:00AM, 9:40AM, 11:30AM 교회, 은혜 위에 서자! (마 20:1-16)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국윤권**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해야 관계가 깊어진다”

## 나성북부교회 유경재 목사, “세속화되지 않는 비결은 말씀 묵상”

3년이 넘는 팬데믹의 어두운 기간을 보내고 교회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듯이 교회는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기에 힘을 때 명령해서 역사하신다. 하지만 팬데믹의 기간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이는 팬데믹 기간 이후의 교회 참석 저조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많은 설교가의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듣는 것을 넘어서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에 집중해서 깊은 세계로 나가자고 요청하는 교회가 있다. 나성북부교회 유경재 목사는 “스스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벨리 지역에서 성경 공부에 힘쓰고 있는 유경재 목사를 만나보았다.



유경재 목사 ©기독일보

### -어떻게 목회자 소명을 받게 되셨는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졸업을 하면서 조이선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캠퍼스 선교를 하고, 총신대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와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구약 성서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 은혜를 많이 받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때는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부르심을 미루면서 일반적인 공부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군대를 학사 장교로 가서 제대하면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상황을 겪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 -나성북부교회에 대해 소개를 한다면.

48년된 교회로 제가 오기 전에 선교를 열심히 했다. 파송 선교사가 간 지역이 두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두 분이 선교를 나갔다. 저희 교회 평신도들이 선교지와 교류가 많아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가서 건물도 직접 지으신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경우 20-30년 전에 정착하신 분들이다. 이동이 별로 없다. 1대 목사님이 20년 목회, 3대 목사님도 20년 동안 안정적인 목회를 해왔던 것이 특징이다. 제가 오기 전에 교회 방향을 잡은 것은, EM 목회를 독립시켜 놓은 것이다. EM 회중에 당회는 없지만, KM 당회가 EM 목회를 간섭하지 않는다. EM과 KM 협력이 잘되

고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목회 철학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성경공부를 많이 한다. 성경 공부 소그룹이 10개가 운영된다. 주중에 온 오프라인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가 5개 반, 부목사가 3개, 장로님 한분이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총 10그룹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성경을 잘 알게 된다. 성경공부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하시면서 좋아하신다. 10개 그룹에 80여 명이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160명인데, 절반 정도가 주중에 성경공부를 하신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도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고 있다.

교회 표어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이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4-5군데 거쳤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교회 건강할 수 있다. KM에서 하고있는 푸드뱅크 사역이 있는데, 1년 반 전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으로 시작했다. EM에서는 벨리레스 큐미션하고 동역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 팬데믹 때 노숙자들이 샤워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이동 버스에서 홈리스들에게 샤워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 -교회에 주일학교, 청년들이 줄고 있다. 젊은 이들이 교회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 목회 방향은 어떠한가.

저희 교회도 연령이 높다. 이민 2세 중에는 30-40대가 많은 편이다. 1세 중에 30-40대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 벨리 지역 문제는 이민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하는데, EM과 어린이 부서 및 청소년 부서에서, 다음세대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팬데믹이 되기 전에는 싱글이 많았어서 어린이 부서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한쪽 공간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한국어 예배와 영어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면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 가르

### 말씀 스스로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해야

치고 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듣는 것만 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설교를 많이 듣지만, 정작 성경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많이 듣지 말라고 한다. 많이 들어도 되지만 듣는 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것 자체로 귀하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수준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로 기도가 중요하다. 이민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교회가 주로 가르쳐 준 것이 간구의 기도이다. 삶의 필요가 있으니까 간절해지고, 그런 기도가 중심이었다. 이민 생활이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이민 오는 분들은 힘든 경우가 많지 않다. 삶의 환경 자체가 간절하지 않다. 한국교회가 가르친 기도는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다. 이민자들은 그것만을 배웠기 때문에 기도가 깊지 않다.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해야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번듯한 집에서 잘 살면서 노후만 여유있게 하곤 한다. 한국교회가 기도하자 간구하자고 주문하지만, 불이 잘 붙지 않는다. 삶의 컨텍스트가 달라졌는데,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온다. 무슨 기도

를 해야 할지 교회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 삶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 아닌, 말씀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

요새 강조하는 것은, 삶의 필요만 놓고 기도하는게 아니라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함의 필요가 다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안에 깊이 스며드는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요기도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된 것처럼 가는 경우가 많다. 먼저 말씀을 깊게 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성경공부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성경공부를 하면 속제도 많은데, 잘 따라와 주신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의 열매이다. 그동안 기도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본지에서 진행하는 '위 브릿지(We Bridge)' 사역을 통해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계시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상생할수 있을까.

취지가 굉장히 좋다.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에 동감했다. 한 교회를 도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적으로 교감이 되어야지 연합될 수 있다. 작지만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 사역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자리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지난 16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 등 4개의 지역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던 다 비슷한 고민을 한다.

오늘날 교회들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각 교회마다 알아서 목회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노회에서 여러 도움을 주는 교단이 장로교회이다. 탁월한 목회자가 나오면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민 목회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 희망이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나성북부교회 www.kcnla.org/ 818-893-8755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이제 내 아이도 5개국어 가능해집니다!"

시골공부방으로 시작해서, 전국 수십만 수강생을 양성하기까지의 노하우 전격 공개!!

## 〈한글로 5개국어 물려준 엄마이야기〉 저자 무료 공개강좌!

한글로 영어 원장 장 춘 화

40년 벙어리 영어! 자녀 한글학교 최고의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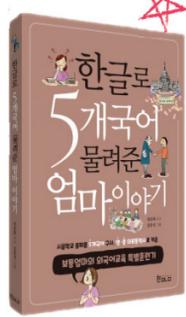
외국어도 모국어 말 배울때처럼 소리로 시작해야 말이 됩니다.

<6개국어, 한글발음에, 소리나는 전자책>

한글로~, 정확히 연음처리 된 한글 발음으로!~

또박또박 10번만 읽어보세요

말문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제2의 삶을 위하여 오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한글로 5개국어 무료 공개강좌

- 1차: 8월 14일(월) 오후 1시~오후5시까지(저녁식사 제공)
- 2차: 8월 15일(화) 오후 1시~오후5시까지(저녁식사 제공)
- 3차: 8월 16일(수) 오후 1시~오후5시까지(저녁식사 제공)
-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의 김준영 대표와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

‘비혼주의, 출산기피, 젠더 이슈’, 누가 이 흐름을 막아설 것인가

조국의 현실에 가슴 아파한 느헤미야 말씀으로 시작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새로운 바람’, ‘새로운 모멘텀’ 되길  
러빙워십, 복음 위해 30초 영상 제작해 연합뉴스에 송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Jesus is with us’에서 이름을 딴, 제이어스(J-US)는 무너진 조국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슬퍼했던 느헤미야의 눈물과 그를 통해 이뤄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모습과 본다. 제이어스가 지난 25일, 올해 12월 서부집회의 일정 조율과 장소 선정을 위해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와 세리토스의 한 작업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김준영 대표: 제이어스는 2011년도에 시작된 단체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등 찬양과 정기 예배로 제일 많이 알려졌지만 예배 사역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 학교를 진행해 왔다. 또한 삶의 예배자 학교를 통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자세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한다.

캠퍼스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청년들의 모임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무브먼트로 이어져 왔다. 유튜브 1억 뷰 이상을 기록해, 한국에서도 많은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제이어스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 매달 평균 3천여 명, 1년 평균 3만여 명이 예배 현장에 찾아오고 있고 1년 평균 6개의 나라를 예배 투어로 방문하고 있다. 미국 동부투어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계속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영적인 공기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코비드가 끝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전국을 찾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 도시 투어를 했다. 첫번째로 느낀 것은,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문을 닫은 경우도 많다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젊은 이들이 예배에 쏟아져 오는 것을 경험하며 굉장히 놀랐다. 청주 같은 지역도 상당수의 담임목사님들이 ‘안 모일 거다,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3천 명이 모이고 예배당에 자리가 부족했다. 올해 4월 용인 집회에서 청년들 2천 5백 명이 목마름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번 미국 집회도, 어떤 면에서는 연장선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집회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청년들끼리 놀란다. ‘아니, 어디서 다 온거야?’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서로를 보면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다. 코비드 이후에 저희들이 밝아왔던 흐름을 미주한인커뮤니티에서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이어스에서는 Women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매리지(marriage) 학교를 열고 있다. 출산율이 0점 대이고 비혼이나 출산을 안 하

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크니까 올해 여름 Women 컨퍼런스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700명 젊은 여성들과 젊은 어머니들이 참석했다. 특히 젠더 이슈에서 오는 혼란들을 다뤘다. 이런 흐름들이 너무 강하다. 그럼 ‘누가 이런 흐름을 막아서고 누가 너희가 하나님이지’는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출산이 축복이라고 얘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예장 합동 통계로는 주일 학교가 70 퍼센트가 사라졌다.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저희가 토요일에 8시간 동안 ‘유스 리바이벌’(Youth Revival)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집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가족부대에 그들을 담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제이어스와 러빙워십(Loving Worship)의 단체 사진 ©러빙워십 제공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 “이제는 젊은 세대 준비시켜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는 러빙워십의 사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 러빙워십은 매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30초 영상을 제작해 연합뉴스에 내보내고 있고, 또 이로 인해 공격을 받기도 한다.

조셉 리 목사: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와 공중파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더라. 세상의 한 가운데서, 식당에서 24시간 tv를 켜 놓는 방송이 연합뉴스였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제이어스와 이번 연합집회를 함께 구상하고 있는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는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를 키워주고 그들을 지원해 주고 그들이 사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사역의 주도권을 넘겨주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조셉 리 목사: 올해는 러빙워십과 모든 디렉팅을 준영 대표에게 맡기려 한다. 러빙워



제이어스가 러빙워십(Loving Worship)과의 12월 남가주 연합집회 준비를 위해 7월 25일 러빙워십을 방문했다. 김준영 제이어스 대표(좌), 러빙워십 조셉 리 목사(우) ©기독교일보

십의 인프라, 시스템, 카메라 등을 지원해 줄 것이다. 러빙워십은 어느 방송사 보다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다. 아까 왜 제 나이를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젊은 세대를 준비시켜줘야 한다. 제가 욕심을 가질 게 아니라 3-4대를 키워주고 서포트해줘야 한다. 한번 더 생각해 볼 게, 제이어스 같은 팀이 교회에 있다고 할 때, 카메라 구입을 위해 1만

여하게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어떻게 주도자가 되게 할 것인가’ 같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런 맥락 안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들과 닿을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제이어스의 12월 집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 보았다.

김준영 대표: 최근에 미국 팀과의 연결되고 있다. 미국에서 집회를 할 경우에는 공동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한국의 예배 운동이 세계화 되고 있다. 저희 유튜브도 시청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5위, 5개 중에 3개는 동남 아시아이고, 나머지는 미국과 호주이다. 다른 나라로 투어를 갔을 때 실감했는데, 몽골, 베트남, 필리핀 같은 아시아권 나라들은 점점 더 웨스턴 워십 소비 대 한국 워십 소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몽골과 베트남은 한국 워십을 더 선호하고 가깝게 느낀다. 저희도 깜짝 놀란 게, 현지인 베트남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이들이 예배당을 다 채운 것도 충격이었고, 자막을 준비를 못 했는데 자기들 언어로 이미 번안해서 부르고 있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불러진 것들이 열방에서 함께 부른다.

제이어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체험하는 바는 이민 사회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거 같다. 요즘 계속 드는 키워드는, 새로운 가족 부대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가족부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에 맞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분명한 것은 저희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곳에 뿌리를 박고 계신 분들의 기도와 움직임이 바탕으로 저희는 촉매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주디 한 기자

불을 후원해 줄 수 있는가. 거기서 부터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김준영 대표: 저희도 러빙과 함께 하게 된 부분 중에서 신뢰가 된 부분이 그 부분이였다. 누군가는 ‘그게 왜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에게 혹은 이곳에 참여할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가.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한다는 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문화에 담는 것이 지금의 새로운 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접촉점이 아닐까.

저희는 ‘설교에도 그 친구들이 어떻게 참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공고  
중남부노회

본 세계예수교장로교총회(World Presbyterian Church) 산하, 중남부노회는 본 노회의 회원 송영일목사(새생명교회 담임, Katy, TX 소재)에 대해서 아래의 범법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인을 받았습니니다. 노회의 결정 전에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범법행위가 가중하기에 사퇴서는 반납되고, 송영일목사는 7월 17일부로 제명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 1. PCUSA 교단과 본 교단(WPC)에 이중으로 교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유지한 사실
- 2. 노회 서기로 제직할 당시(2020년), 노회 규칙(헌법)중 자신에게 불리한 이중 교적에 관한 항목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 3.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

지역 교회와 한인 크리스천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각고의 노력으로 쇄신하는 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중남부노회 회원 일동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중남부노회  
General Assembly of World Presbyterian Church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 조이스 리, M.D.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 조이스 리, M.D. 메디컬 세미나 참가자 모집!



떡과 선물 증정!

선착순 20명  
예약제 모집

주제 경동맥

일시 8/30 (Wed) 10:00AM

장소 센터메디컬 클리닉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신청 무료 전화 신청  
방법 (714) 519-3024

“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 뉴욕 할렐루야대회 개최 “교회여 일어나라”

## 권준 목사, “온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오길”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주최하는 2023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가 28일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뉴욕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35도를 웃도는 폭염 가운데서도 참석해 뉴욕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이준성 회장은 “1970년대 말 미국에 이민한 한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수요도 급증했다”면서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는 이 같은 배경에 따른 자신감과 함께 같은 동포끼리만이 아니라 이웃한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려는 선교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작돼 40년에 이르고 있다”고 대회를 소개했다.

이어 이 회장은 “할렐루야대회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뉴욕교계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협력 그리고 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밑바탕 되었

기 때문”이라면서 “함께 협력해 준 모든 교회와 동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미국 사회에 영적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뉴욕 한인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3일간 메시지를 전하는 권준 목사는 첫날 ‘교회여, 성령으로 타오르라’(행2:42-47)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 목사는 마치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설교로 뉴욕 성도들을 일깨웠다.

권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인간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성령이 임하면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령을 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 권 목사는 “성령체험은 내 자아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이 역사를 위해 제자들이 간



2023년 뉴욕 할렐루야대회가 28일 하크네시아교회에서 개최됐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절히 모여 기도했다. 이 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 목사는 “뉴욕에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 뉴욕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매일 매일 살

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첫날 집회는 박태규 목사의 사회로 이준성 회장 대회사, 김상근 목사 대표기도, 이광모 장로 성경봉독, 권준 목사 설교, 김춘근 목사 헌금기도, 신우철 목사 부부 헌금특송, 김홍배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 “중국 억류된 2,600 여 탈북민 강제 복송 막아야”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복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7월 31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송경호 기자

## 지성호 의원 “中이 국제사회서 인정 못 받는 이유”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터기도운동, 바른교육교수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북클럽 등 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복송을 반대하며 31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기간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인 탈북민 수가 2,600여 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의 강제복송 가능성을 두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탈북민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 2천여 명에 대한 송환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되자 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G2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탈북민에 대한 강제복송 때문”이라며 “유엔난민협약에도 가입한 중국이,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땅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복송한다면, 책임 있는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없고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2천여 명이 원하는 그

자유를 위해, 그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복송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북한인권 활동가로서, 또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싸워 복송을 막고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과거 북한에 억류됐었던 임현수 목사(TMTC 대표)는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땅을 불법 점거한 불법 집단이다. 그들로 인해 수백만의 영혼들이 죽어갔다”며 “복송될지 모르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은 모두 우리 국민이다. 복송되면 끌려가는 즉시 처형되거나 강제노동, 혹은 고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북한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증인이다. 탈북민이 복송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국민이다. 대통령과 외교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적극 나서 복송을 막아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용희 교수(에스터기도운동 대표)는 “증언에 의하면, 강제복송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소지품을 빼앗긴다”며 “특히 임신부들은 강제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 고문 후에는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노동을 당하다가 죽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혹 살아 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특별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

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며 “현재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언제 강제복송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언론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강제복송되지 않고 중국 정부에 의해 UN 난민으로 인정되어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양심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주최측은 성명에서 “강제복송을 당하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강제노동 등으로 탈북민을 탄압하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임을 중국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복송을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인권 유린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 인민들은 그러한 치욕 속에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에 맞는 책무를 다할 때, 세계인은 중국을 다시 새롭게 볼 것이며 아시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엄격히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http://www.e-NCA.org)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 전기세가 11달러?!



### 2023년 대박



###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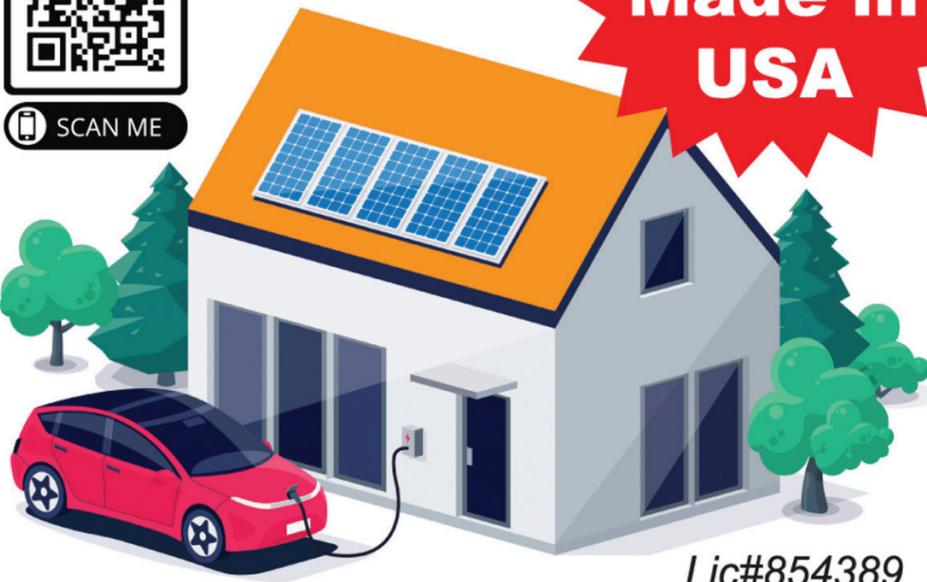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 \*\*\* 전기세 50~90% 절감 \*\*\*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213.500.8000  
714.702.0151

CELLS PARTNER

-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새벽예배) 오전 11:30 (토-일) - 원정성서예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움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서예 오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어우러짐(AN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광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 유아부, 초등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과 진리는 있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과 진리는 있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강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닉 부이치치 “미국, 더는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 없다”



복음 전도사 닉 부이치치. ©크리스천포스트

### 낙태·포르노·성매매 지적하며 회개와 전도 강력 촉구

‘사지 없는 삶’(Life Without Limbs) 설립자이자 복음전도사인 닉 부이치치(Nick Vujicic·40)가 “미국교회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낙태, 포르노 중독, 성매매와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연례 전국종교방송인대회(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Convention)에 참석한 부이치치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난 미국이 하나님께 복을 한 번 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육 및 입양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78개국을 다니며 80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온 부이치치는 “미국에는 반쯤 비어 있는 10만 개의 교회가 있고, 이들의 부채는 4,980억 달러(634조 4,520억 원)에 달한다. 5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나 양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독교인들이 시의회, 학교 위원회 및 기타 지역 정치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을 위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부이치치는 음란물 중독 및 강단에서의 성매매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목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부이치치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한 챔피언들’(Champions for the Brokenhearted)이라는 소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와 고통을 다루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또 네 자녀의 헌신적인 아버지로서 그는 “전도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며 아이들과의 소통과 열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과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를 다루는 이들에게 “우리는 허리를 좀 더 강하게 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달라”고 했다.

그는 “미국 소녀 3명 중 1명과 소년 5명 중 1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믿기지 않는다. 어디서나 펜타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파티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마약과 술에 취해 있다.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10대 성전환’ 美 여성, 의료진 등 상대 100만 달러 소송

미국에서 어린 시절 성별 불쾌감을 겪다가 10대 때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자신을 수술한 의료진을 고소했다.

그녀는 “의료진이 내 몸을 망가뜨려 불구로 만들고 고통에 빠뜨렸다.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과 악화되는 심리적 고통의 길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성전환자인 소렌 알다코(Soren Aldaco·21)는 “당시 난 17살이었고, 의사는 단 한 번의 진료 후 내게 교차 성 호르몬을 처방했고, 유방 절제술을 권유했다”고 했다.

텍사스(The Texas)에 의하면, 그녀는 텍사스 타라트 카운티 지방법원에 텔스콧 페리, 스리나스 네칼라푸, 바바라 로즈 우드, 리처드 산투치, 애슐리 드레온, 크레인 클리닉 LL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100만 달러(12억 7,45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린 시절부터 성별위화감을 경험했던 그녀는 가족 문제, 할머니의 죽음, 왕따 등으로 정신 건강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다고 한다. 포레들보다 일찍 사춘기를 맞은 그녀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이 트랜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알다코의 부모는 2017년 12월경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메사스프링스 정신병원(Mesa Springs Psychiatric Hospital)에 그녀를 입원시켰고, 그곳에서 네칼라푸(Nekkalapu) 박사의 치료를 받았다.

2019년 알다코는 트랜스-센덴스 인터내셔널(Trans-Cendence International)이라는 트랜스 지원 단체에 참석해, ‘요청 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처

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페리 박사(Dr. Perry)를 알게 됐다. 2020년 1월 28일 30분간 알다코를 만난 페리 박사는 그녀에게 교차 성 호르몬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미성년자에게 교차 성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투여한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에는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그리고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박사가 알다코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이성 호르몬에 대한 잠재적 대안을 논의하지 않았고, 교차 호르몬 복용과 관련된 위험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다코는 호르몬 처방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겪기 시작했으나, 페리 박사는 계속 호르몬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2021년 11월까지 교차 성 호르몬을 처방 받았는데, 페리 박사 외에 오스틴의 클레인 클리닉의 드레온(DeLeon) 박사도 그녀에게 성전환 치료를 장려하는 편지를 보냈다.

드레온 박사와 실무진은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에 대한 그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알다코의 이전 의료진에게 그녀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코는 수술 후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합병증이 찾아왔다. 잘못된 수술의 결과, 알다코는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미경 기자



# 살인·강간·고문... 인도 마니푸르주 사태 고발한 보고서 공개돼



인도 기독교인 여성들 상대로 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여성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동영상 캡처

## 쿠키족 사태, 기독교인들이 당한 혐오 범죄의 일부에 불과

인도의 거리에서 기독교인 여성 2명이 남성들에게 나체로 끌려다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지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가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마니푸르주 추라찬드푸르(Churachandpur) 지역에 기반을 둔 부족들 회의인 원주민부족지도자포럼(Indigenous Tribal Leaders' Forum, ITLF)은, 주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쿠키족 부족 여성들을 상대로 한 12건의 폭력 사건이 담긴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들은 지난 5월 3일에서 7월 6일 사이에 쿠키족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혐오스러운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로 이 지역의 힌두 메이테이 부족은 지난 5월 3일 쿠키조(Kuki-Zo) 부족에 대한 인종 폭력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 ITLF에 따르면, 5월 3일 이후 마니푸르에서는 최소 129명의 쿠키조 부족민들이 사망했고, 292개의 마을이 불에 탔으며, 4,550채 이상의 집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으며, 357개의 교회와 종교 건물이 불에 탔다.

이번 갈등은 지난 4월 마니푸르 고등법원의 명령에 의해 촉발됐다. 당시 고등법원은 주 정부에 "부족 목록에 메이테이 공동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라"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잠재적으로 메이테이족이 쿠키족 지역의 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에, 두 부족 간 다툼을 불러일으켰다.

5월 3일, 메이테이가 대다수인 임팔 지역에 있는 탕키 흐마르 부인의 집은 중병에 걸린 2명을 포함해 4가구 22명의 부족 기독교인을 위한 안식처 역할을 했다. 급진적 단체 아랍바이 벵골과 메이테이 리본이 이끄는 약 100명의 폭도가 도착해 이들을 위협하고 약탈한 뒤 떠나라고 명령했다.

탕키 흐마르 부인의 아들은 폭도에게 강해진 기자

잔인하게 폭행당하던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하수구에 버려진 뒤 간신히 탈출했다. 그녀에 대한 공격은 현지 여성들이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고 불에 탔고, 그들이 기르던 2마리의 개도 불에 타 죽었다. 5월 4일, B. 파이놈 마을은 도끼, 칼, 총으로 무장한 메이테이 공동체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 마을은 약탈당하고 불에 탔다. 마니푸르 경찰은 소수의 마을 사람들을 구했으나 폭도에게 넘겼다. 폭도들 먼저 남성들을 살해한 다음, 여성들을 강제로 나체로 걷게 하고 집단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 여성의 아버지와 남동생도 있었다. 7월 26일 이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마니푸르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점점 거세지는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모디 정부는 이 사태로 인해 불신임 투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의회에서 확실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실각할 가능성은 없다.

이달 초 유럽의회는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부족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마니푸르주의 평화를 시급히 회복할 것을 인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힌두교 다수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적 동기의 분열 정책과 무장 단체의 활동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군이 살인에 연루돼 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설명도 있었다.

결의안에 대해 인도 외무부는 유럽 회의를 비판하며, 이 문제는 전적으로 '내부 문제'라고 했다. 외무부는 "인도 내정에 대한 그러한 간섭은 용납될 수 없으며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며 "인도 당국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마니푸르의 상황을 파악하고, 평화와 조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강해진 기자

# '쿠데타 발생' 니제르, 극단 이슬람 공격에 더 취약해져

## 현지 출신 오픈도어 전문가, 우려와 안타까움 표명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현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경고했다.

민주적인 투표를 선출된 니제르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은 26일 군부에 의해 해임됐다. 니제르 출신인 오픈도어 일리아자디(Ililia Djadi)는 이 같은 '예기치 않은 전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쿠데타 이전에 니제르는 매우 불안정한 지역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자 평화의 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극단주의 단체들이 이 불안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자디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권력을 장악한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도미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는 "쿠데타는 니제르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한 '후퇴'라며 "어떤 불안정도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니제르는 국경 주변에서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였다. 그래서 니제르에는 수천 명의 난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OC제플 OC제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9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면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벧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대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전**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15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주의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 www.dongshin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지영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혁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번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찬양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만능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최초의 목사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 김창식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은 평양 남산현교회를 출신교사와 함께 개척한 김창식(金昌植, 1857~1929)이다. 그는 황해도 수안군 성동면에서 태어났다.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며 성장한 김창식은 농사일을 하다가 21살에 세상을 알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방랑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의 눈을 빼어 만든게 사진기라는 괴 소문이 파다하였다. 이는 반개화파인 수구파들이 만들어 낸 악의적 소문이었다.

김창식은 이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북감리 선교사 올링거(F.Ohlinger)의 집에 잡부로 취직해서 선교사의 사생활 일체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그들의 불미스런 행동을 좇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문의 해괴한 일을 찾아 낼 수 없었다.

김창식은 오히려 올링거 선교사 부부의 인격과 신실한 생활에 감화를 받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그는 올링거와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마태복음을 비롯한 4개 복음서와 '경성 초등문답' 등의 교리를 배웠다.

마침내 김창식은 1890년 세례를 받고 1892년 봄, 미국 감리회 조선선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전도사가 되었다. 그후 1893년 올링거가 미국으로 돌아가자, 미 감리회 의료 선교사인 홀이 그를 대신하여 1891년 12월에 조선에 오자 그의 개인 비서겸 조사가 되어 평양으로 갔다.

평양 서문밖의 어느 기생집을 사들여 진료소를 겸한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해 8월 김창식은 홀과 함께 평양지방에 정식으로 파송되어 순회 전도를 시작하였다. 당시 홀 선교사는 신혼이었고 외국인인 장기 거주가 불가하자 한성과 평양을 오고 가는 왕래하는 사역을 하였다. 그로인하여 김창식은 교회업무 등을 도맡아 함으로 선교사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감당하게 되었다.

한편 1894년 5월 수구파였고 민비의 일가인 평양 감사 민병석이 평양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서양 선교사를 돕는 장로교 한석진 조사와 감리교인 8명과 김창식을 평양 관아로 압송하여 배교를 강요하며 고문을 하였다.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그러나 한석진과 김창식은 "나는 기독교가 옳다는 사실을 안 이상 기독교 신자로 살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을 계속 하자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도록 고문을 당하였다. 선교사들은 전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공사에게 알리어 이를 강력히 항의하여 저들이 풀려나도록 요청했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어명을 내리어 저들이 풀려나도록 하였다.

이때 마태 선교사가 그 어명을 받아 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여기 어명이 있소!"라고 외쳤다. 그로인해 김창식과 한석진은 거의 사경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896년에는 홀의 순직과 그의 미망인 로제타 홀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 후임자인 노블 선교사 부부가 평양에 임명받아 오자 그들과 함께 평양과 이북지역의 복음 전파에 힘썼다. 그는 그해부터 신학반에 들어가서 4년 과정의 목회자 수업을 받았다.

1899년에는 삼화 골로 파송받아 평양 밖 지역까지 전도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한지 17년 만인 1901년 5월 14일 한성 상동교회에서 개최된 제 17회 미국감리회 조선 선교연회에서 스크렌턴 감독의 집례로 한국 최초의 목사로 임명받았다. 참고로 장로교에서는 1907년 9월에 7인의 조선인 목사가 안수 되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그의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가 1년간 사역을 하였다. 1904년에는 한국인 최초 지방감리사로 임명받아 이북 지역 순회목사로 5년간 전도 사역을 하였다. 1921년부터 1924년까지 67세로 정년 은퇴하기 까지는 황해도 해주지방 순회목사로 활약하였다.

그는 2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는 선교사들로부터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문학자(1) 암브로시우스 2 토빗 이야기

암브로시우스는 목회도 탁월하게 잘 했지만,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주목을 받는 중요한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암브로시우스 <나뭇 이야기>는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 세력을 향해 강력한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암브로시우스의 또 다른 걸작이 <토빗 이야기>입니다. <토빗 이야기> <엘리아와 금식론> <나뭇 이야기>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했던 암브로시우스의 3대 문헌입니다. <나뭇 이야기>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의 포도밭을 빼앗았던 부자들의 탐욕을 지적했다면, <토빗 이야기>는 부자들의 고리대금 하는 악을 경고합니다.

'토빗'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생소합니다. <토빗>이 구약 외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는 토빗을 구약성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토빗>을 구약성경에 포함하려 했고, 고대 교회 많은 교부와 학자들이 자신들의 글에서 <토빗>을 성경으로 인용합니다.

고대 교회의 중요한 문서들이 <토빗>을 인용합니다. 거의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었던 <디다케/Didache>에서 <토빗>을 인용합니다. 폴립갑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토빗>을 인용하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요한 크리소스톰,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 등이 토빗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신교와 구교가 연합으로 편만 공동번역 성경에 <토빗>이 있습니다. <토빗>의 시대 배경은 BC 8-7세기 경이고, 저작 시기는 BC 200년경입니다. 폴란드 위미아와 마주리 대학교 미하우 보이치에호프키 교수는 <토빗>이 구약성경 느헤미야와 분량과 내용(교훈과 기도)이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토빗은 어린 시절부터 이웃에 대하여 선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와 결혼하여 아들 토비아를 낳았습니다. 그 가족은 어느 날 포로가 되어 고향 갈릴리를 떠나 앗수르 니느웨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임금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출세합니다. 그는 미디어에 가바엘에게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은 열 달란트를 맡겨 놓습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은 시체 매장 금지령을 내려 유대인들을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토빗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이웃 유대인들을 묻어 주었고, 결국 들통나 도피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는 동안 참새 똥이 눈에 떨어져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미디어에 사는 그의 친족 사라는 악귀에 사로잡혀 불행합니다. 결혼만 하면 남편들이 죽습니다. 일곱 남자에게 시집을 갖지만, 일곱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토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라파엘을 보내십니다. 라파엘을 통해 두 가정의 문제를 풀어 주신 것입니다.

토빗은 아들 토비아에게 20년 전 미디어의 가바엘에게 맡긴 열 달란트를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미디어로 가는 토비아는 동행자를 만났는데 그는 위장한 천사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은 토비아와 사라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합니다. 결혼식 기간에 들은 여행 중에 잡은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향불에 태워 마귀를 물리친 뒤 기도드립니다. 토비아는 사라와 함께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토비아는 물고기 쓸개를 아버지의 눈에 발라 시력을 되찾아 줍니다. 토빗은 갖고 온 재산의 절반을 라파엘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라파엘은 자신이 천사임을 밝히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토빗은 시력을 되찾은 뒤에도 선행을 실천하며 112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죽기 전 아들 토비아를 불러 미디어로 가라는 유언을 남기자 토비아는 아내와 함께 미디어로 돌아가 처가 식구들을 모시고 살다가 117살에 죽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토빗>을 중심으로 <토빗 이야기>를 썼습니다. <토빗 이야기>는 24장의 설

교입니다. 주로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입니다. 대략 정리하면, 1장에서는 토빗의 삶을 소개하고, 2장에서 15장까지는 부자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의 악을 고발합니다. 돈놀이하는 '우상숭배'라고 규정짓습니다. 16장부터 24장까지는 선한 삶과 가난에 대해 변증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주로 부자들을 경고하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경고합니다. 그는 돈을 빌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규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빌립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흉작 등 불가피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경우는 탐욕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탐욕만큼 나쁜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한도를 넘는 소비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가 되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악한 채권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자를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사랑과 나눔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채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빚을 지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빚을 져야 한다면 온갖 힘을 다해 빚을 갚고 그 울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하게 상급을 쌓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토빗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토빗 이야기>를 복음과 연결하며 정리합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사랑의 채무자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채무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토빗을 빚대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방식을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달보트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기독교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1626(227)-3454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연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캠퍼스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학부 | 신학, 사역목회학, 상담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모든 예식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종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목,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담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집회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아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집회 오후 7:30  
토요일침기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송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네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침기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아기도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이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7:30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문(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5: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토요일종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sc@gmail.com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 아름답게 나이 드는 어른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게 젊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격려를 받을 때 감사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젊어 보인다고 젊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때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추한 몸부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자신의 한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또한 예술입니다. 헨리 프레데릭 아미엘은 "나이 드는 법을 알면 지혜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의 가장 어려운 단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나이 드는 일에 대해 관심

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게 나이 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분들을 만나면 경외감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나이 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 가운데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 가운데 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일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떠나 온 것도 아닌데, 청춘이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우리 곁을 떠나 있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으면 청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청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 드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분들의 글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앤 치티스터는 그녀의 책 《세월이 주는 선물》에서 노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년은 결코 짐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세월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

람들이 노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있다(11쪽)."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17쪽)".

조지 맥도날드는 "나이 드는 것은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무르익음이며, 팽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메릴 루 수이어는 "나는 나이가 들면서 빛을 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우리는 해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아름다운 어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어른은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배우는 어른은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어른은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어른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늘 배우는 분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아름다운 어른은 놓아줄 것을 놓아줄 줄 아는 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울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잘 떠나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서

글픈 과거를 놓아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면 새롭게 찾아오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좋은 만남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놓아주어야 할 것을 놓아주어 흘러가게 하십시오.

셋째, 아름다운 어른은 자족할 줄 아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욕(老慾)입니다. 탐욕입니다. 가장 부요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즐길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어른은 감사할 줄 아는 분입니다. 감사란 받은 은혜와 복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란 받은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이 보입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나쁜 것이 보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잘못을 발견하려는 자는 낙원에서도 오류를 발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이 글은 나이 들어가는 저를 위해 쓴 글입니다. 제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쓴 글입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어른으로 무르익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요 칼럼

# 다음세대를 일으킵시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목사 안수 받은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평신도이면서 신학에 관심을 두고 궁금한 것을 많이 안고 오는 학생도 있었고, 어쩌면 별생각 없이 교실에 질문도 없이 앉아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생의 반은 이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대학 시

절부터 신학을 준비해서 신학교로 들어온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 요즘은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그 여파가 이미 벌써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사역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정원 미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군소신학교들은 이미 정원을 줄이고, 교수진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을 맞아서 나라의 미래까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은퇴 목사님은 교회도 축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건물도 점점 비어 가는데, 교회 시설도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 여파가 이민 교회에도 여지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 점점 피부에 와 닿게 다가오

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만 가는 교회가 아닌데,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학교가 없어진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수가 어른들 수보다 적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모 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흐름에 따라 줄여가야 할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걸고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

습니다.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 최고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몇몇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함께 미래를 사는 최선이라 믿습니다.

현상에 주눅 들지 말고, 탁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흐름에 도전하며 다음 세대를 살려며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교회학교와 더불어 교회에서 후원하는 주중 학교가 그 기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미래의 다니엘 에스더 같은 복의 근원들을 배출하는 베델이 되십시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지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알고 나면,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야로 세상에 오는 일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2천여 년 전 율법으로 엄격한 유대 땅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직면했을 때 그의 감정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는 간음이라고 생각할 상황인데도, 요셉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작고 낮은 일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미션은 임신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인정받을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평생 따라다닐 부정적 소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임태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과학적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는데 그때 “성령으로 임태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을 할 수나 있었겠습

니까? 요셉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미션이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역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일, 낮은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탄 받을 일이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안 후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는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가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사역에 열매가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은 자신이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

를 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때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김목사야! 네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껏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인 것을 깨닫고는 회개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 그 때부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신이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선교이든 기도이든 예배이든 내 표현, 내 감정,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방승호 박사 칼럼

### 욕기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방 승 호 박사  
센트럴신학대학원  
한국부 구역 분과장

욕기는 성경에서 어려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욕기를 즐겨 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욕에 관한 구약 최고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수업은 분명히 최고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욕기 과정을 듣는 것은 구약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업을 일부러 듣지 않고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욕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욕기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는 그것이 무고한 사람의 고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이 누구입니까? 욕기서는 욕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며 시작합니다.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 1:1)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욕을 읽을 때 욕의 이런 상황은 욕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전까지 바

뀌지 않습니다.

사실, 불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오늘날 불의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범죄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수단이 있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법과 처벌에서 종종 도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권력, 재력, 학력이 높은 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축적한 부로 삶을 계속해서 즐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욕기의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견해로 악인은 그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에 기초합니다. 욕의 친구들이 이 신명기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고전적인 견해를 사용해서 욕 자신은 모르고 또는 부인하지만,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견해는 악인들이 종종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이 이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욕은 친구들의 견해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백함, 즉 의인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주장합니다.

21장 23~26절에 있는 욕의 말은 이 점을 잘 요약합니다. 욕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쟈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흠 속에 놓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욕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을 때 참으로 악인이 응보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욕을 비난하는 소발이 옳고 욕이 그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발이 틀렸고 욕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욕기 말미에 하나님께서 욕의 친구들을 꾸짖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둘 다 틀리고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둘 다 맞다는 양사론 또는 둘 다 틀렸다는 양비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든 저것이든 둘 중 하나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욕과 그의 친구들 견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세어보면, 벌을 받지 않고 의인과 헌신된 사람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사는 악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와 같이 살고 이후에는 나사로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에도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두 세계 모두에서 좋은 것을 갖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2023 우미셸 X 원하트 워십 투어

# WORSHIP TOUR



**우미셸 목사**  
만나교회 부목사/찬양인도자  
재미 2세 디아스포라 사역자  
한국 만나교회 예배인도자

**8월 18일 금 7:30PM**  
감사한인교회 본당

**8월 19일 토 6:00PM**  
주님의영광교회 본당

**TICKET \$15**  
티켓 수익은 디아스포라 미주 지역의 찬양, 문화 사역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됩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사무실 (1391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오프라인 티켓구매** | 감사한인교회 사무실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주님의영광교회 사무실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온라인 티켓구매** | [oneheart-usa.com](http://oneheart-usa.com)    **문의** | 213 347 5080

ONEHEART MINISTRY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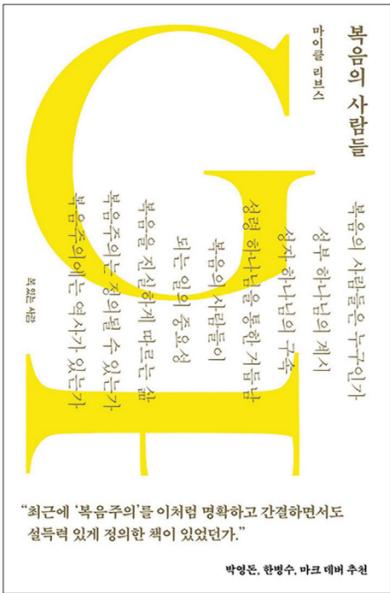
GBC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CBS 기독교방송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진짜 복음 믿는 무리, 알아볼 수 있나?

# ‘복음주의’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복음의 사람들**  
 마이클 리브스 | 송동민 역  
 복있는사람 | 212쪽

최근에 ‘복음주의’를 이처럼 명확하고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정의한 책이 있었는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복음주의’ 핵심 교리를 다룬 이 책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박사), 런던 램업 플레이스 올 소울스 교회의 목사이자 영국 대학기독교인회 신학 자문위원으로 일한 마이클 리브스는 교회사와 조직신학에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목사, 저자, 신학자이다.

국내에도 종교개혁과 청교도 관련 저서가 제법 소개되었다. 리브스는 최근에 출판된 <복음의 사람들(복있는사람, 2023)>을 통해 진정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는 다이어그램으로 복음주의가 믿는 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1. 성부 하나님의 계시, 2. 성자 하나님의 구속, 3. 성령 하나님을 통한 거듭남이 가장 큰 골자이고, 각 항목 밑에는 1-1. 성경의 최종 계시, 1-2. 성경의 영감, 1-3. 성경의 신뢰성, 2-1. 그리스도의 유일한 정체성, 2-2.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 2-3.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3-1. 새로운 탄생, 3-2. 새로운 삶, 3-3. 새 백성이 각각 위치한다.

정리된 이 내용이 <복음의 사람들>의 목차이자 개요이다. 여기에 추가로 2개 부록을 통해, 저자는 복음주의가 정의될 수 있고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복음주의로 분류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의문스러울 것이다. 장로교 신학(개혁주의), 침례교 신학, 감리교 신학(웨슬리 신학) 등으로 구분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복음주의’는 다르다. 저자가 말한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만일 스스로 기독교라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한다면,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 나아가 성경을 보완하는 더 높은 권위와 추가된 계시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있는가?

성경이 부분적으로 영감되어 인간적 요소가 묻어난 부분엔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과 성경에 관한 같은 믿음을 공유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공언한 가톨릭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는 기독교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경험하는 바가 확연히 다른 두 집단을 모두 하나의 기독교로 통합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복음주의는 단순히 여러 신학적 견해 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주의는 성격 자체가 복음적이라 그 안에 들어와 같은 믿음을 공유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분별이 다를 수 있는 많은 교리들에 관용과 자유를 베풀지만, 핵심 교리를 반대하는 이들



저자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 ©복있는사람

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로 분류한다. 단순히 말하면, 복음주의는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알고 믿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지켜내야 할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정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복음주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그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따른다. 복음주의 밖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겸손), 복음주의는 밖에 있는 이들이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한다.

마이클 리브스의 <복음의 사람들>은 진짜 복음주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어떻게든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각종 분파를 집어넣어 참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가르치는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된 지금, 우리는 복음주의의 핵심과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독교의 한 분파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이 복음 자체를 명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이를 통해 전수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자의 설명에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 후서 13:8

For we cannot do anything against the truth, but only for the truth.

2 CORINTHIANS 13:8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 서울 (310) 538-3333 | LA (323) 582-2424 |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공공 미술 유형과 공동선 추구

# 우리 삶과 환경 바꾸는 데 공헌하는 '공공 미술'

공동체 이롭게 하는 예술 가능?  
공공 예술, 고대 문명부터 발견  
20세기 들어, 새로운 양상 출현  
공동선 추구 통해 더 나은 미래

요즘 미술계를 지켜보면 예술 행위가 '사적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스타가 되길 소망하고 성공 신화에 몰두하는 모습, 표현적인 개성에 대한 암묵적인 찬양 등은 우리 사회에 편만한 개인주의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트 페어, 옥션, 사이버 미술시장, 아트펀드 등 상업주의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미술의 공적 기능보다 경제적 기능에 더 충실한 면모를 노출한다. 덕분에 미술은 뉴스에도 자주 오르지만, 정작 예술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만 부각된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술이 자신에게 갇힌 누에고치가 될 경우 세상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작품을 통한 공적 가치의 구현도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이즈음 우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예술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공공 예술의 개념은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중에게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념비적인 조각상과 부조물을 만들었고,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과 영웅을 기리는 조각품과 건축학적 특징으로 공공장소를 장식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예술의 주요 후원자가 되어 프레스코, 스테인드글라스, 조각품 등을 설치하였다.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사르트르 대성당은 예술적인 스테인드글라스로 명성이 자자한데, 창문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는 성경의 이야기와 성도들의 삶으로 디자인된 수천 개의 색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 예술품을 광장이나 공공시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그 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반영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피렌체 사람들의 힘과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는가 하면, 얀(Jan)과 후베르트 반 에이크(Hubert Van Eyck)의 <갠트 제단화>(1432),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1541) 등은 지금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미술의 공공성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은 강한 시민적 자부심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변형한 사회였는데, 이러한 시대적 기류는 그 시대의 예술, 특히

네덜란드 회화 장르에 반영되었다. 네덜란드 회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소작농, 상인, 장인 등 평민의 삶을 묘사한 일상의 장면을 즐겨 그렸는데 이런 광경은 네덜란드 시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세기 들어 공공 미술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유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시카고 밀레니엄 광장에 있는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 2004)는 광택이 나는 표면이 타원형으로 휘어져 있는데, 관객이 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감상자는 자신이 구름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자유로운 상상의 유희를 즐기게 된다.

쇠퇴한 지역을 재생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공공 미술품도 볼 수 있다. 영국 게이트헤드에 설치된 <북쪽의 천사>(the Angel of the North, 1998)는 앤소니 고펜리(Anthony Gormley)의 공공 작품으로, 높이 66피트, 폭이 177피트나 되는 대형 구조물이다. 이 조형물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제작되었으며 현재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설치미술가 크리스토(Christo)와 장 클로드(Jeanne-Claude)의 <게이트>(The Gates, 2005)는 뉴욕 시 센트럴 파크 산책로를 따라 7,500개 이상의 사프란 색상의 패브릭 천을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삭막한 철근 빌딩으로 둘러싸인 메가 시티를 작은 바람에도 물결치는 낭만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켰다.

공공 예술은 대규모 조각과 벽화에서부터 인터랙티브 설치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공원, 광장, 박물관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다. 현대의 공공 예술은 종종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며 관광, 경제 개발 및 커뮤니티 정체성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공공 미술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꾸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미술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오브제 지향적 공공 미술을 넘어 참여자와의 대화를 작업의 중심에 놓는 작업을 포함한다. 페미니스트 행동미술가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장안한 '새로운 장르 공공 미술'(New Genre Public Art)이 그것이다.



애니쉬 카푸어, 클라우드 게이트, 2004.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 게이트, 2005.

수잔 레이시의 작업은 참여자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크리스털 퀴트>의 경우 시니어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개인적 경험들을 나누고 관람자들은 발코니 너머에서 미리 녹음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2010)에도 출품하였는데 그녀의 작품은 '여성들의 수다'를 작품화하는 것이었다. 15개 팀으로 나뉜 여성들이 각기 다른 15개 장소에서 '수다' 퍼포먼스를 펼쳤으로써 '여성 아젠다의 발굴, 제안을 통해 정책수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었다.

정치적 아젠다를 미술의 영역에서 다루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자답게 레이시가 여성 문제를 이슈로 삼은 것은 '공공 미술'을 지렛대 삼아 페미니즘 운동을 퍼뜨리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품이 갖는 미적 가치와 창의력, 독창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과연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는 '공공 미술'의 성격에 부합한 것일까?

공공 미술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언가 전력을 다하여 추구할만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공동선'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주요한 인식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사회 구성원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상한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인식 자체의 부재가 '유사 공공 미술'의 출현까지 가져오게 된 셈이다.

공동선의 개념을 예술에 적용하는 것은 예술이 개별 작가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요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늘날처럼 전쟁과 테러, 이해집단 간의 대립과 충돌이 멈추지 않는 세계에서 친밀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공동선의 추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세서날-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신사참배 85년을 맞아

# 미주디아스포라 대속죄 연합기도는 복음통일이라는 대부흥을 볼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교로 2차례 예루살렘성전파괴

솔로몬 성전파괴 - 바빌로니아에 의해 B.C 597년 아빕월 9일에,  
헤롯 성전파괴 - 로마제국에 의해 A.D 70년 아빕월 9일 같은 날 파괴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의 발원지 장대현교회



▲1938년 9월 9일 - 평양신사참배하는 장로교총회대표들

1907년 2월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대부흥 후,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결의하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등장,

북한교회들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남과 북의 분단으로...

복음통일부흥으로 교회가 다시 복귀되고 세워지는 우선 일은 다니엘처럼 조상들의 배교의 죄악을 후손들이라도 깨달아 속죄와 참회하는 기도라 믿습니다.

### 미주한인 교회/성도들의 신사참배대속기도일

2023년 9월 3일(주일) ~ 9일(토): 공예배시 교회형편에 맞게 한 번 드림

회개를 통해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에 디아스포라 성도와 교회들이  
참여를 원하시면,

- 1)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 신사참배(\$25/권당)
- 2) 영어권 2세들을 위한 신사참배요약본과 31개 회개기도문(한/영)
- 3) 신사참배 배경과 해결 강의동영상 링크를 제공드립니다.

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주최 : 미주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주관 : 기드론동작선교회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찬: 기독교일보

전화 : (360)305-2313, (425)775-7477 문의: dodream2006@gmail.com